

격려사

후학의 공경과 정성으로 개최하는 만공대선사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주권을 회복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그 의미가 배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사안들이 올바르게 개선되기를 많은 분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선의 정체성과 불교계를 일본의 갖은 회유로부터 지켜낸 공적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공 대선사는 일제강점기 불교계를 일제의 병합과 타락으로부터 지켜 오늘날의 조계종단의 근간을 이루게 한 분입니다. 해방 70년이 지나는 오늘,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에 맞서던 만공대선사의 항일운동에 대한 업적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37년 3월 11일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새롭게 기록되어야 할 날입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 13도 도지사과 31본산 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불교 진흥책이라는 허울을 내걸고 미나미 총독이 내선일치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일갈한 다음 단상에 올라 주장자를 세 번 내려치고 정교 분리를 강조하는 사자후를 토한 이가 바로 당시 마곡사 주지로서 참석 중이시던 만공선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써 침략자들의 정책에 정식으로 반기를 들어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온몸을 내던지는 헌신이셨습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강기라 할 것입니다. 그 위력은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전하는 수범이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키겠다는 선언은 어떤 독립운동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지닌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선일치와 창씨개명의 밥이 다 익어가던 때 솥을 열고 찬물을 부어 그 밥을 설게 만든 만공선사의 사자후는 어느 항일항쟁 못지않게 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사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전해져 현재까지도 우리의 정신문화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길이 추앙해 마지않을 일인데 유형적인 잣대로만 판단을 한다면 이는 크게 불경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대선사의 위상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함께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선사의 위상에 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학술대회는 많은 분들에게 향기로운 의미로 다가갈 것입니다. 학술대회를 준해해 주신 수덕사와 경허 만공 선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9년 9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